

##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14. 2. 6(월) 14:00-14:45 / 장소 : 금강대학교 대회의실

< 참석자 : 서문성의장, 조성환위원, 박훈성위원, 최인위원, 박준영위원, 신유영위원, 김병두(도언)위원, 이문선(덕중)위원 이상 8명 >

< 배석자 : 민주영 이상 1명 >

< 불참석자 : 권탄준위원 이상 1명 >

**사회자** : 지금부터 2013학년도 제3차 금강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위원회는 재적위원 9명에 참석위원 8명으로 적법하게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14학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자 이렇게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본 회의 >

**사회자** :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서문성 의장** : 본 회의는 사립학교 및 관련 특례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자문과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여 다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전에는 대학평의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럼 관련 법에 따라 2014학년도 본예산(안)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무부서인 기획조정팀의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처 기획조정팀 박훈성팀장 2014학년도 본예산(안) 설명)

**조성환 위원** : 일전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하여 2014학년도 예산을 심의했고 총액은 변동되지 않았는데 다시 이렇게 회의를 거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훈성 위원** : 사학진흥재단 관계자에 의하면 비록 총액은 같지만 예산의 흐름과 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대학평의원회 자문과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 이사회까지 다시 열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번거로우실지 모르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서문성 의장** : 오전에 개최된 대학평의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대학의 경우 전액장학금을 통하여 학비를 감면하고 비등록금재원으로 보수, 관리운영비 등을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금 회계로는 학생을 위한 지출 즉, 장학금, 학생지원비 등을 사용하면 실제로 남는 금액은 없습니다. 일부 남는 금액은 관리비 중 전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인 위원** : 등록금 회계 예산 집행 후 발생한 잉여금에 대하여는 우리대학의 경우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가요?

**서문성 의장** : 우리대학의 경우 등록금을 의존하여 운영하는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잉여금은 거의 남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잉여금이 남는다면 잉여금 처리 원칙으로

우선 직접교육비 지출, 즉 우선 1순위로 장학금, 학생지원비, 기타학생경비와 같이 학생경비에 배정하고, 2순위로 연구비, 연구관리비 등 연구비에 배정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관리운영비, 도서구입비 등에 경중을 가려 배정할 예정입니다. 배정시 위원님들과 충분히 회의를 거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성 의장** : 이외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4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전 위원** : 동의합니다.

**서문성 의장** : 감사합니다. 그럼 2013학년도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의 폐회 선언과 함께 회의를 마칩니다.>